

게시판

무료직업교육생 모집 서울시립직업 전문학교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8월 19일까지 무료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의상·패션디자인, 건축인테리어 등이며 원서교부와 접수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된다. (02)441-5561

예비 부모 교육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임신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8월 22-31일(월·수 10-12시) 영아의 발달 교육과 건강 가정을 위한 훈련을 주제로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02)2144-1130



5060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육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총론·건강·노동 및 여기라는 내용으로 '5060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프로그램을(사진)을 9월 6일(매주 화요일 오후 1시)까지 실시한다. (02)2282-1100

진주대천 무료상영 국립진주박물관은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해 3D입체 애니메이션 영화 '진주대천'을 8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와 4시 2회에 걸쳐 국립서울과학관에서 무료 상영한다. (055)742-5951

현대전화 활용강좌 전주시 평생학습센터는 8월 22-26일 매일 오후 2-4시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대전화 활용 무료 강좌'를 연다. 수강 신청 및 접수는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063)241-1123

20면 상시 퍼즐 정답

관	축	사	군
세	사	대	육
음	만	유	
보		의	용
살	구	피	호
미	생	지	신
투	호	조	룡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거창국제연극제 참가작품 '침묵과 독백(한국)'의 한 장면.



서울시 주최 제10회 좋은 영화 감상회에서 상영되는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8월 28일까지 열리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05 참가작품 '안녕! 세익스피어 아저씨'.



벽을 허물고 화합과 상생의 몸짓을 담아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참가작품 '불'.

연극 볼까? 영화 볼까?

늦여름, 국내외 연극·영화제가 관객들을 부르고 있다. '감성의 숲에 꽃들이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거창국제연극제, 연극 음악 전시 공연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고양국제 어린이영화제 등 다양한 테마로 개막된다. 이번 주말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연인의 손을 잡고 연극과 영화속으로 빠져보는 어떨까?

8월 전국서 열리는 연극·영화제

자연과 인간, 연극이 하나 되는 곳, 거창국제연극제
지역 문화 촉매이자 명실상부한 국제연극제로 자리매김한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가 '감성의 숲에 꽃들이 피어나다'는 주제로 열린다.

8월 17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경남 거창군 수송대 일대 야외공연장과 거창문화센터에서 펼쳐진다. 해외 공식 초청작 5편, 국내 공식 초청작 16편, 공식 참가작 18편 등 총 9개국 45개 단체가 참가해 총 199회 공연을 선보인다.

해외 초청작으로는 루마니아 비질의 '살로메', 일본 동경전천지의 '한여름 밤의 꿈' 등 5개 작품, 국내 초청작은 극단 목화의 '심청은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한국장극원의 '오류란전', 조승미 발레단의 '한여름 밤의 발레 여행' 등 16개 작품이다. 또 대상, 희곡상, 연출상 등을 놓고 국내 18개 단체가 경연을 벌이며, 국내외 학술세미나와 베를린 레네스레움 무대

미술전 등 흥미로운 부대행사들도 있다. 참가비 무료. (055)943-4152

이 보다 더 다양한 예술축제는 없다,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05'는 '풍유열정가'라는 열정 넘치는 슬로건 아래 8월 28일까지 흥대 앞 '길고 싶은 거리'에서 펼쳐진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한국,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일본, 호주 등 8개국 300여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독립예술축제다.

'고성방가(음악축제)' '이구동성(연극축제)' '내부공사(전시축제)' '안중모색(아시아독립영화제)' '중구남방(거리예술제)' 등 5개 부문 예술제로 구성된다. '아시아 독립예술의 창작과 교류 활성화'라는 축제의 지향점을 찾기 위해 '아시아프린지포럼' 등 학술교류의 장도 밀도 있게 진행된다. 인디 문화를 만끽하고 싶다면 지금 흥대 거리로 가보자. (02)325-8150

어린이들을 위한 꿈과 의망의 축제, 고양국제 어린이영화제

올해 처음 열리는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

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국내 최초의 국제어린이영상축제로 미취학아동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이 상영된다.

'어린이 날개 달다'라는 슬로건으로 8월 19-24일 고양시의 덕양아울립누리, 롯데시네마 일산 14, 일산호수공원 주제광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노르웨이 영화 '우유의 빛깔' (The Color of Milk, 감독 토린 리안)이 상영되며 이밖의 작품들은 스페인 프로그램(48편) △경쟁부문(18편) △어린이가 만든 영화(32편) △테마 프로그램(46편)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보인다.

정문도&스크린의 작품 '어른들은 못 말려'는 거리에서 짐을 벨는 등 어른들의 나쁜 모습을 추적하는 6분짜리 고발 영화다. 이희재&IMS 작품 '달리아'는 우유·단소·홀라후프 등 주변의 물건들 의인화한 인형극으로, 집안의 중요성을 재치 넘치는 상상력으로 표현해 냈다.

또 단편 영화가 상영되는 경쟁부문에는 104편의 출품작 중 선정된 16편의 영화도 함께 소개된다. 무료. (031)902-7124

그 밖의 연극·영화제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서울숲 등 시내 광장과 공원 7

곳에서 9월 9일까지 제10회 좋은 영화 감상회를 연다. 매일 오후 8시(서울광장은 오후 8시 30분부터) '간 큰 가족' '베트맨 비긴스'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등 6편이 무료상영되며 영화 음악과 재즈가 연주되는 콘서트도 마련된다. (02)3707-9467

'산과 고개의 도시' 문경에서도 제2회 문경산악영화제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주출판 성과 정문도 스크린을 걸고 국내외에서 출품된 19개 작품이 상영된다. 영화제 초청작은 아와니디 오로라의 '암벽등반', KTV의 '남극을 가다' 등 등반을 통해 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도전의식, 희망과 좌절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많다. 이밖에도 4,000m 몽골 상공을 비행하는 패러글라이더들의 이야기를 다룬 '고 퍼터', 경북 철곡 연꽃 밭의 아름다움을 담은 한문식 감독의 '망월사의 연발' 등 독특한 작품도 상영한다. 산악제전, MTB, 패러글라이딩 등도 열린다. 무료. (054)554-8848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수원화성국제연극제'에서는 리투아니아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러시아의 '소넬' 등 국제 연극공연과 '사랑은 비를 타고' 기획공연과 북남미 민속공연 등이 펼쳐진다. (031)238-5740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공연



노장춤과 취발이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미란씨.

불교 전통 춤사위 + '지금 여기' 국립무용단 실험무대 국립극장 8월 10~20일

승무, 봉산탈춤의 노장춤 등 불교의 숨결이 스민 전통 춤사위가 현대적인 안무로 거듭난다. 국립무용단의 '대화가 있는 무대' 바리바리 춤출 디딤새 2005가 8월 10-20일 국립극장 별모름극장에서 그 화려한 대장정을 벌인다.

올해로 5년째 이어지는 국립무용단의 실험무대 '바리바리 춤출 디딤새 2005'에는 국립무용단 정소연, 부산시립무용단 김미란, 대구예술대 강사 추현주, 선화예고 강사 이미희씨 등 신선 안무가들의 작품이 오른다.

첫 번째 무대는 봉산탈춤 중 노장춤과 취발이춤을 창작춤 '버려짐'으로 재해석한 김미란씨의 무대이다. '봉산탈춤 속에 형성화된 성(性)'을 주제로 노장춤과 취발이춤을 중심으로 건강한 에로티시즘의 세계를 춤사위로 표현한다.

달맞이 산사음악회

경북 영천시 만불사는 8월 19일 오후 7시 '선(線)속에서 찾는 산사의 선(禪)과 명상'이란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부터 매월 음력 보름마다 열린 만불사 산사음악회는 1회-잔불의 향연, 2회-잔불과 국악의 한마당, 3회-산사에서 만나는 안데스음악과 국악 등 매회마다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열린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산사음악회에서는 해금실내악단인 이현의 농, 인도전통 현악기 사로드 연주자인 바르그비 미스트리의 영상회상 등 해금과 사로드의 협

두 번째 무대는 정소연씨가 불교의식에 뿌리를 둔 이매방류 승무의 팔사위 발디딤사위 등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창작춤 '어떻게든'을 선보인다. 고립된 유배자의 삶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어떻게든'은 거울을 소품으로 이용해 이중적인 삶의 부조리를 춤으로 승화시킨다.

세 번째 무대는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살풀이인 권명화류 살풀이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창작춤 '열어라, 열릴 것이다'로 추현주씨가 맡았다. 살풀이에 '난장' 의식을 결합해 인생의 희로애락과 업보를 풀어나간다.

이미희씨는 서울 새남당의 춤사위와 정신을 창작춤 '해탈문'으로 네 번째 무대를 장식한다. '해탈문'은 것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해탈을 위한 노력이고 예술가의 행위는 자아 수련과 해탈에 이르기 위한 노력

8월 19일 경북 영천 만불사서 해금·인 전통악기 사로드 협연

연이 장엄을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찬불가로 포교하는 심진 스님, 범능 스님, 도일 스님의 음성공양과 모듬북의 향연이 준비돼 있어 음성공양의 진수가 펼쳐진다.

만불사 회주 학생 스님은 "앞으로 매월 음력 보름마다 달맞이 산사음악회를 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단과 명상음악가들을 초청해 포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음악세계를 보여 줄 계획이다"며 개최목적 밝혔다. (054)335-0101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전시



'한국미학의 선구자, 우현 고유섭의 생애와 연구자료'에 나오는 고유섭씨의 논문 '조선탈파의 연구'.

'한국 미학의 선구자' 우현 고유섭 생애와 연구자료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재단은 '한국미학의 선구자, 우현 고유섭의 생애와 연구자료'를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실에서 개최한다. 고유섭 선생은 한국미술사학계의 3인의 거목 진흥섭, 황수영, 최순우의 은사였으며 <금동미륵반가상의 고찰>, <조선탈파의 연구> 등 다수의 불교 관련 논문을 남겼다. 이번 전시회는 우현의 유품 원고와 저서들의 초판본, 생

애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이 선보인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우현의 제자인 황수영 박사가 동국대박물관에 기탁해 오던 사료들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1,000여점에 달하는 탐과, 건축, 공예, 회화 등의 다양한 원본 사진자료들 중에서 200여 점이 엄선했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영주 부쳐사, 경주 불국사, 개동 현화사지 칠층석탑, 개성 천마산 영봉사지 오층탑 등의 유려한 판 사진도 전시된다. (032)433-1710

방송 프로그램

15일 06:15 8.15 보도특집
16일 11:05 아름다운 초대
17일 15:00 음악의 마음
18일 07:05 아침저널
19일 09:05 행복한 미소
20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21일 10:00 라디오 범죄

15일 05:50 한국의 명창
16일 01:45 TV범죄
17일 15:50 열린마당
18일 17:30 법문가요
19일 16:50 고향사랑 건강사랑
20일 07:45 불교TV매일
21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진시몬의 낭만라디오(8월 20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를 다시 틀어 볼 수 있는 시간. 나른함이 밀려오는 오후 2시, 진시몬이 준비한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불교텔레비전: 영행란 장미화의 행복충전(8월 21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영행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들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클릭!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상품문의 : (02)2004-8218-9

김영동 명상음악 '생명의 소리'

대금으로 만나는 명상음악의 진수, 우리나라 대금 연주계의 거장 김영동씨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명상음악 '생명의 소리'로 담아냈다. 대금과 단소, 독주, 자연의 소리, 영가2, 수제현 등 다양한 명상음악과 낭송이 삽입돼 있다. 가격 1만5천원.